

주간 전남농업

Jeonnam Agricultural Information | August

2018년
8월 둘째주

VOL. 197



전남농업기술원, 여름철 고온기 딸기 묘 관리 기술지원 총력



전라 농업기술원
Jeonnam-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목차 및 요약

1 주간 날씨정보 5

- ▶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21~24도, 최고기온: 29~31도)보다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6~14mm)보다 적겠음

2 농산물 관측정보 6

- ▶ 배추 생산 및 출하, 가격전망
- ▶ 무 생산 및 출하, 가격전망
- ▶ 양배추 생산 및 출하, 가격전망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9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3

- ▶ 순천시, 미국 LA 판촉행사용 농수특산물 60톤 선적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14

- ▶ 전남농업기술원, 여름철 고온기 딸기묘 관리 기술지원 총력
- ▶ 전남농업기술원, 폭염으로 돌발해충 발생 확산... 방제 비상
- ▶ 복숭아, 국산 품종으로 여름 과일 시장 시선몰이
- ▶ 지방 적고 담백한 염소고기~ 향산화 효과도 좋아
- ▶ 팔·녹두·동부, 꽃 필 즈음 친환경제제 부려 해충 예방
- ▶ 뽕잎, 장수풍뎅이 누디바이러스 예방에 효과
- ▶ 씨감자 수확 시기만 조절해도 탄저병 걱정 끝!

6

정책 동향 21

- ▶ 전남도, 가뭄 대책 용수 개발에 7억 추가 투입
- ▶ 전남도, 가축 폭염 피해 예방 예비비 10억 추가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23

- ▶ 광양시, 한 여름 밤 속의 신개념 팜마켓 웰니스팜&파티 개최
- ▶ 곡성군, 가축 폭염피해 최소화 총력
- ▶ 장흥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선정 70억원 확보
- ▶ 해남군, 폭염·가뭄 속 농작물 피해 예방 총력
- ▶ 장성군, 맛있는 장성 농특산물 한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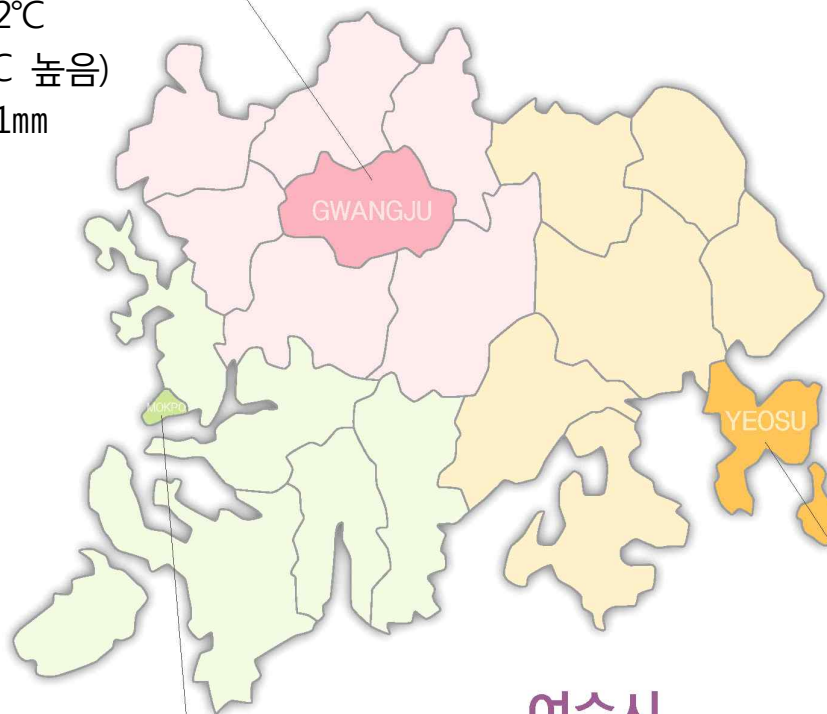
- ▶ 광동성 상반기 수입산 과일, 작년에 비해 30% 증가
- ▶ 3대 명약 중 하나인 구기자, 미래의 식품 성장 동력으로 주목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8. 8. 13. 시카고 선물거래소)

- ▶ 한우 인공수정 교육 신청하세요
- ▶ 농식품부, 매월 두 번째 수요일은 축산환경 개선의 날
- ▶ 청 럽 한 세 상

1. 주간 날씨정보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26.5℃
(평년대비 3.7℃ 높음)
- 최고기온 : 30.9℃
(평년대비 4.1℃ 높음)
- 최저기온 : 23.2℃
(평년대비 2.2℃ 높음)
- 강 수 량 : 11.1mm



목포시

- 평균기온 : 26.3℃
(평년대비 3.2℃ 높음)
- 최고기온 : 30.3℃
(평년대비 2.7℃ 높음)
- 최저기온 : 23.5℃
(평년대비 2.1℃ 높음)
- 강 수 량 : 6.9mm

여수시

- 평균기온 : 25.9℃
(평년대비 3.3℃ 높음)
- 최고기온 : 28.9℃
(평년대비 3.9℃ 높음)
- 최저기온 : 23.7℃
(평년대비 1.9℃ 높음)
- 강 수 량 : 9.0mm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날씨누리

2. 농산물 관측정보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배추 생산 및 출하, 가격전망

🌀 생산전망 : 고랭지배추 생산량 작년보다 감소

- 2018년 고랭지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5% 감소하나, 평년과는 비슷한 5,095ha로 조사되었다.

🌀 출하전망 : 8월 출하량 작년보다 감소 전망

- 8월 배추 출하량은 고랭지배추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4%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9월 출하량은 지연되었던 고랭지배추가 출하되면서 작년보다 2%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가격전망 : 8월 가격 작년 및 평년보다 높을 전망

- 8월 가락시장 상품 10kg(3포기)당 도매가격은 폭염피해로 고랭지배추 출하량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작년(13,940원) 및 평년(10,500원)보다 높은 15,000원 내외로 전망된다.
- 9월 도매가격은 고랭지배추 출하량 증가로 작년(14,470원)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 생산 및 출하, 가격전망

🌀 생산전망 : 고랭지무 생산량 작년보다 감소

- 준고랭지1기작 무 작황은 파종기(5월) 저온, 생육기(7월) 폭염, 가뭄으로 작년보다 부진하나, 9월부터 본격 출하되는 고랭지무는 현재까지 생육이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고랭지무 생산량은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5, 6% 감소한 6만 5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출하전망 : 8월 출하량 작년보다 감소, 9월 증가

- 8월 고랭지무 출하량은 출하면적 감소와 기상악화에 따른 단수 감소로 출하량이 적었던 작년보다도 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8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고랭지무는 현재까지 작황 피해가 크지 않으나, 고온 및 가뭄에 따른 생육지연으로 출하시기가 평년보다도 10~15일 가량 늦어질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격전망 : 8월 가격 작년보다 높을 전망

- 8월 가격은 고랭지무 출하량 감소로 작년(18,350원)과 평년(13,320원)보다 높은 22,000원/20kg 내외로 전망된다.
- 9월 가격은 고랭지무 본격 출하로 작년(13,950원)과 8월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배추 생산 및 출하, 가격전망

생산전망 : 고랭지양배추 생산량 평년보다 감소 전망

- 8월 상순 주 출하되는 준고랭지1기작 양배추 작황은 폭염으로 크게 부진하며, 중순 이후 출하되는 고랭지 양배추도 결구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 전체 생산량은 작년보다 4% 증가하나, 평년보다는 5% 감소한 6만 6천 톤으로 전망된다.

출하전망 : 8월 출하량은 작년보다 감소 전망

- 8월 출하량은 고랭지양배추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폭염으로 8월 출하가 여의치 못해 작년보다 17%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전망 : 8월 가격은 평년보다 높을 전망

- 8월 가격은 작년 및 평년보다 높은 14,000원/8kg(상품) 내외로 전망된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품목별 도소매 정보

식량작물

(2018. 8. 13. 기준 / 단위: 원)

쌀(일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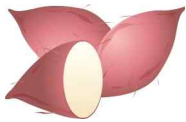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3)	1주일전 (8/6)	전년대비	
20kg	45,920	45,920	↑	40.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5,796	32,600	39,467	↑	16.4

콩(백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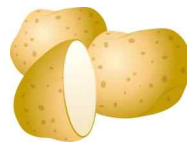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3)	1주일전 (8/6)	전년대비	
35kg	177,600	177,600	↑	3.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1,120	171,800	155,600	↑	14.1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3)	1주일전 (8/6)	전년대비	
10kg	41,600	39,800	↑	22.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5,320	34,050	30,573	↑	36.1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3)	1주일전 (8/6)	전년대비	
20kg	44,800	39,000	↑	17.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8,480	38,200	23,520	↑	90.5

채소류

배추(고랭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3)	1주일전 (8/6)	전년대비	
10kg	15,000	15,200	↑	0.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	14,925	11,297	↑	32.8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3)	1주일전 (8/6)	전년대비	
8kg	19,800	18,000	↑	112.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996	9,300	6,253	↑	216.6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3)	1주일전 (8/6)	전년대비	
100개	64,333	53,333	↓	22.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3,733	82,500	62,530	↑	2.9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3)	1주일전 (8/6)	전년대비	
20개	20,200	17,200	↓	16.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4,840	24,150	17,127	↑	17.9

채소류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3)	1주일전 (8/6)	전년대비
60kg	1,210,000	1,210,000	↑ 75.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00,000	690,000	709,600	↑ 70.5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3)	1주일전 (8/6)	전년대비
10kg	48,800	61,800	↑ 4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1,760	43,400	35,533	↑ 37.3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3)	1주일전 (8/6)	전년대비
20kg	125,000	125,000	-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5,000	-	-	-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3)	1주일전 (8/6)	전년대비
20kg	16,200	14,600	↓ 36.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3,640	25,550	19,070	↓ 15.0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3)	1주일전 (8/6)	전년대비
20kg	49,600	42,600	↑ 73.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3,740	28,650	33,750	↑ 47.0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3)	1주일전 (8/6)	전년대비
1kg	2,000	1,880	↓ 3.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560	2,063	1,721	↑ 16.2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3)	1주일전 (8/6)	전년대비
5kg	26,000	23,000	↑ 53.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6,904	16,900	18,033	↑ 44.2

수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3)	1주일전 (8/6)	전년대비
1개	25,400	26,400	↑ 30.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6,532	19,400	18,453	↑ 37.6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3)	1주일전 (8/6)	전년대비
10kg	19,800	19,800	↓ 38.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840	32,300	21,700	↓ 8.8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3)	1주일전 (8/6)	전년대비
5kg	14,200	16,600	↓ 32.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3,800	20,950	16,490	↓ 13.9

과일류

사과(쓰가루)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3)	1주일전 (8/6)	전년대비
10kg	33,200	32,600	↑ 9.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	30,200	30,911	↑ 7.4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3)	1주일전 (8/6)	전년대비
15kg	35,600	35,600	↓ 36.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4,800	56,400	53,250	↓ 33.1

포도(거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3)	1주일전 (8/6)	전년대비
2kg	13,400	13,400	↑ 1.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4,680	13,150	11,287	↑ 18.7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3)	1주일전 (8/6)	전년대비
100g	7,858	7,961	↓ 1.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966	7,942	7,267	↑ 8.1

닭고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3)	1주일전 (8/6)	전년대비
1kg	5,190	5,100	↑ 5.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798	4,929	5,418	↓ 4.2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3)	1주일전 (8/6)	전년대비
30kg	498,600	497,600	↓ 3.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8,200	516,600	537,733	↓ 7.3

느타리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3)	1주일전 (8/6)	전년대비
2kg	15,400	14,400	↑ 21.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4,840	12,650	12,873	↑ 19.6

새송이버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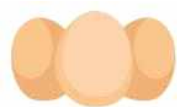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3)	1주일전 (8/6)	전년대비
2kg	7,600	7,200	- 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472	7,600	7,317	↑ 3.9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3)	1주일전 (8/6)	전년대비
100g	2,196	2,163	↓ 7.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248	2,366	2,143	↑ 2.5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3)	1주일전 (8/6)	전년대비
30개	4,778	4,584	↓ 36.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138	7,480	5,907	↓ 19.1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3)	1주일전 (8/6)	전년대비	
1L	2,532	2,529	↑	0.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528	2,527	2,530	↑	0.1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자료 출처: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8. 8. 13. 기준 / 단위: 원)

한우(600kg)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680	5,460	5,431	↑ 4.0	↑ 4.6
거세	6,923	6,829	6,592	↑ 1.4	↑ 5.0

한우송아지(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2,997	2,981	3,017	↑ 0.5	↓ 0.7
수	3,999	3,902	3,829	↑ 2.5	↑ 4.4

육우(60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604	3,305	2,739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9.0	↑ 31.6

젖소수송아지(7일령)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27	219	115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3.7	↑ 97.4

돼지(11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425	397	451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7.1	↓ 5.8

육계(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919	1,865	1,400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2.9	↑ 37.1

계란(원/특란10개)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000	956	1,630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4.6	↓ 38.7

오리(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567	2,467	2,667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4.1	↓ 3.7

*자료 출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순천시, 미국 LA 판촉행사용 농수특산물 60톤 선적

- 오는 9월, 미국 LA·애틀랜타·샌디에고 시온마켓 매장 6개소 판촉 예정 -

- 순천시는 오는 9월 초 미국 시온마켓(LA·애틀랜타·샌디에고) 6개점에서 계획된 판촉 활동을 위해 순천시 우수 농수특산물 60여톤을 6일 선적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선적한 품목은 순천농협남도식품, 매일식품(주), 낙안전통식품, 쌍지뿔, 씨스타, 경덕농수산의 김치류, 반찬류, 젓갈류, 장류, 소스류, 보리떡, 약과, 누룽지, 해조류, 건어물 등 60톤 40여 품목으로, 23만 달러(한화 2억 6천만 원) 상당이다.
- 이날 선적된 농수특산물의 판촉활동은 오는 9월 6~9일까지 4일간 LA·애틀랜타·샌디에고 시온마켓 6개 지점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 수출업체와 합동으로 꾸려진 해외판촉단은 교민이 많은 LA지역 시온마켓 4개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판촉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에 시관계자는 “수출업체와 행정의 협업을 통해 민관합동 판촉행사를 통해, 현지 교민들이 더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우수한 농수특산물이 안정적으로 미주시장에 자리매김할수 있도록 다양한 수출 지원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순천시는 지난 7월까지 농산물 2,500t을 수출해 55억 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이에 따라 올해 목표액 100억 원의 55%를 달성했다.

* 출처 : 순천시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전남농업기술원, 여름철 고온기 딸기묘 관리 기술지원 총력

- 차광과 환기로 온도 낮추고, 병해충 철저 방제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해 여름철 고온기 육묘 관리와 철저한 병해충 방제가 필요하다는 재배 농가별로 기술 지원에 나섰다 밝혔다.
- 딸기 육묘는 병해충에 걸리지 않은 건전한 식물체를 이식하여, 굵고 튼튼한 줄기(런너)로부터 뿌리가 내리도록 하는 것이 핵심기술이다.
- 요즘처럼 폭염이 지속되는 날씨에는 시설하우스 내 온도와 습도가 높아져 식물체가 스트레스를 받을 뿐 아니라 병해충 발생에 따른 피해가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딸기는 25℃ 이상에서는 생육이 지연되고, 30℃ 이상에서는 생육이 정지되며, 37℃ 내외에서는 고온 장애를 받을 수 있다.
- 고온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25~30%의 차광망을 설치하고, 환풍팬을 작동시켜 하우스 내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이때, 차광이 너무 심하면 묘가 가늘고 연약해져 흰가루병 등의 발생이 많아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 시설 내 고온이 지속되면, 딸기 런너가 타거나 뿌리가 피해를 입어 생육이 떨어질 수 있어 지하부 온도관리에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탄저병, 시들음병, 줄기마름병, 작은뿌리파리, 진딧물, 응애 등 병해충 발생이 많아지므로 예방과 방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 특히,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탄저병 예방을 위해서는 가는 구멍이 뚫린 관을 땅 속에 묻어 물방울 형태로 물을 주는 점적 관수 혹은 저면관수를 실시해주고, 가위 등 작업 도구는 철저하게 소독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약제를 살포할 때도 비슷한 농약의 중복사용을 피해야 약제 내성균 발생을 줄일 수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남농업기술원, 폭염으로 돌발해충 발생 확산... 방제 비상

- 적용약제 사용하여 방제 당부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지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미국선녀벌레, 파밤나방 등 돌발해충이 도내 농가에 확산되고 있어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 미국선녀벌레는 배, 감, 사과, 차나무 등 여러 농작물은 물론 관상수 등에서 알로 월동하여 5월 상·중순에 부화하고, 7~8월경에 어른벌레가 된다. 어린벌레와 어른벌레가 농작물의 양분을 빨아먹어 농작물을 약화시키고, 배설물로 인해 그을음병이 생겨 상품성이 낮아진다.
- 파밤나방은 먹이의 범위가 넓고, 폭식으로 인해 밭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부화한 애벌레는 잎을 조금씩 갉아먹어 비교적 작은 흔적이 생기지만, 점점 자라 4령 이상부터는 잎 전체를 갉아먹는다.
- 미국선녀벌레의 어른벌레 방제적기는 알을 낳는 8월 하순 이전이며, 작물별로 등록된 합성농약을 살포해야 한다. 한편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할 경우 제충국추출물제, 데리스추출물제, 고삼 + 계피추출물제, 제충국 + 멀구슬추출물제 등이 효과가 좋다.
- 파밤나방은 약제저항성이 강한 해충이므로 병해충의 발생이나 증가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여 비교적 갓 깨어난 애벌레시기에 등록된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복숭아, 국산 품종으로 여름 과일 시장 시선몰이

- 수확 시기 다양한 17품종 개발로 보급률 34%까지 높여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6월부터 9월까지 수확 시기가 다양하고 맛 좋은 복숭아 품종을 개발해 보급한 결과, 지난해 국산 품종 보급률이 34%로 나타나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고 밝혔다.
- 올해까지 털 없는 천도 7품종과 털 있는 복숭아 10품종으로 모두 총 17품종을 육성했다. 품질이 뛰어나며 추위에도 잘 견디고, 노동력은 덜 드는 품종을 목표로 연구 개발해 온 결과다.
- 털 없는 천도 중 대표는 국내 최초 천도 품종인 천홍이다. 여름 휴가철인 7월 중순과 하순께 수확하며, 색이 붉고 단맛과 신맛이 조화로워 국내 천도 중 재배 면적이 가장 많다.
- 최근 개발해 앞으로 천도 시장을 이끌 간편 소비형 품종으로는 옐로드림(2016년 육성, 숙기 7월 상순), 스위트퀸(2017년 육성, 숙기 7월 하순), 이노센스(2017년 육성, 숙기 8월 상순), 설홍(2014년 육성, 숙기 9월 상순)이 있다.
- 대한민국 1호 복숭아 품종인 유명(1977년 육성, 숙기 8월 하순)은 털 있는 복숭아 대표 품종이다. 단단한 품종의 대명사로,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했다.
- 추위에 견디는 성질이 좋아 전국에서 재배할 수 있으며, 소비자 선호도가 좋은 품종은 미홍(2005년 육성, 숙기 6월 하순), 유미(2008년 육성, 숙기 7월 상순), 수미(2004년 육성, 숙기 8월 하순) 등이 있다. 모두 하얗고 부드러운 과육의 맛 좋은 복숭아로 겨울철 어는 피해에도 강하다.
- 앞으로 농촌진흥청은 소비자와 농업인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복숭아 품종 개발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봉지를 씌우지 않고도 재배할 수 있는 품종 연구는 물론, 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해 달콤함은 살리고 껍질째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천도 품종 개발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지방 적고 담백한 염소고기~ 항산화 효과도 좋아

- 양고기보다 항산화 활성 10배 이상 높아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건국대학교 문상호 교수팀과 공동으로 염소고기의 항산화 활성과 부위별 특성을 분석해 발표했다.
- 이번 연구는 약용으로 인식해 온 염소고기의 육용 소비를 늘리고, 기초 자료 확보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진행했다.
- 연구진은 11개월령 흑염소의 4개 부위(등심과 다리, 목심, 갈비)를 두 가지(FRAP, ORAC) 분석법으로 항산화 활성을 측정했다.
- 그 결과, 프랩(FRAP) 분석에서는 모든 부위(등심 12.11 ± 1.50 ~ 목심 $16.06 \pm 1.90 \mu\text{M TE/mg}$)의 항산화 능력이 양고기 활성(0.48 ± 0.04 ~ 0.55 ± 0.16)보다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 오라클(ORAC) 분석에서도 모든 부위(등심 68.05 ± 1.02 ~ 갈비 $69.44 \pm 1.10 \mu\text{M TE/mg}$)의 항산화 능력이 흑돼지고기 활성(50.25 ± 1.52 ~ 55.90 ± 0.93)보다 높게 나타났다.
- 항산화 활성이 높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노화 등을 일으키는 활성 산소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크다는 의미다.
- 부위별 물리적 특성(물성)은 7가지 항목을 측정했다.
- △경도(단단함)와 검성(뭉침), 파쇄성(부서짐)은 등심이 가장 높았고, △점착성(달라붙음)과 씹힘성은 갈비, △탄력성은 목심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응집성은 부위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염소고기

팔·녹두·동부, 꽃 필 즈음 친환경제제 뿌려 해충 예방

- 수확량에 영향 주는 해충 방제 주의 당부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팔과 녹두, 동부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주요 해충 방제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 지난해 전국 팔 재배지의 66%가 나방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화기 이후 해충 발생이 크게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 팔과 녹두, 동부에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는 콩명나방과 팔나방, 콩줄기명나방, 왕담배나방이 있다. 모두 꽃과 꼬투리를 잘 먹는다.
- 해충마다 생활사는 다르지만 대부분 꽃이 피는 시기에 맞춰 재배지에 들어가 알을 낳는다. 이후 알에서 나온 애벌레는 꽃과 꼬투리 안으로 파고들어 피해를 준다.
- 꽃봉오리 아래나 꼬투리 한쪽에 구멍이 보이면 그 안에 애벌레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식물체에 한 마리 이상의 해충이 눈에 띄는 것만으로도 꽃과 꼬투리의 60%가량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콩명나방의 경우, 한 식물체에 애벌레 8마리가 있으면 수량이 30% 줄어든다.
- 현재로서는 팔이나 녹두, 동부에 등록된 유기합성살충제는 없으나, 친환경제제를 제때 활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나방류에 효과적인 친환경제제를 꽃이 필 때쯤 뿌려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왕담배나방의 경우, 고삼추출물 1,000배액을 뿌려주면 효과를 볼 수 있다.
- 팔에서 발생하는 팔바구미는 꼬투리에 알을 낳고, 애벌레가 씨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씨앗을 상하게 해 품질이 떨어진다.
- 수확 후에도 상온에 둘 경우, 씨앗에 있던 애벌레가 어른벌레가 돼 추가 피해를 일으킨다. 수확한 씨앗은 8℃ 이하의 저온에 보관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뽕잎, 장수풍뎅이 누디바이러스 예방에 효과

- 뽕잎분말 활용하면 감염 시 치사율 1/3로 줄어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애완 학습 곤충으로 인기인 장수풍뎅이에 피해를 주는 누디바이러스 예방법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 누디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애벌레는 어른벌레가 되지 못하고 죽는 비율이 79%에 달하며,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피해가 크다.
- 2008년 국내에 처음 들어와 2012년부터 전국에 확산되고 있으며, 해마다 사육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해, 노지 사육은 49.2%, 비닐하우스는 14.3%, 실내는 5.5%에서 발생이 확인됐다.
- 이번에 개발한 누디바이러스 예방법은 애벌레 1~2령기에 장수풍뎅이의 먹이인 발효톱밥에 뽕잎분말을 섞어 먹이는 것이다.
- 발효톱밥에 뽕잎분말을 1~5% 섞어 한 번 더 상온에서 4주 정도 발효시킨 뒤, 발효 후에 온도가 떨어지면 사용한다.
- 누디바이러스에 감염된 애벌레에 발효톱밥만 먹은 대조군은 감염 10주 후 치사율이 100%였으나, 뽕잎분말을 섞은 발효톱밥을 먹였더니 치사율이 30%로 1/3가량으로 떨어졌다.
- 바이러스 예방 효과는 뽕잎분말을 섞어 먹인 지 4주 후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는 뽕잎에 들어 있는 1-데옥시노지리마이신(1-Deoxynojirimycin, 1-DNJ)이 누디바이러스 증식을 막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의 특허를 출원(제10-2018-69671호) 했으며, 곤충 사육 농가와 산업체에 기술 이전할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씨감자 수확 시기만 조절해도 탄저병 걱정 끝!

- 하령, 9월 하순께 수확하고 아물이 최소 3주해야 효과적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고랭지 씨감자 수확 시기를 앞두고 하령의 탄저병 발생을 손쉽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 국내 씨감자 주요 생산지인 고랭지는 8월 중순에 경엽건조제 처리를 한 뒤 9월 상순에 수확한다. 이후 저장고에 5~6개월 저장하고 이듬해 봄에 재배용으로 공급한다.
- 씨감자를 수미 감자처럼 9월 상순에 수확하거나 충분한 아물이 처리 없이 저온다습하게 보관하면 탄저병 발병 확률이 높다.
- 탄저병이 발생하면 씨감자의 기부나 표면이 진한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고 함몰되며, 껍질 안쪽이 썩어 씨감자로 사용할 수 없다.
- 씨감자 하령은 수미 감자와 달리 9월 하순에 수확하고 아물이를 최소 3주 이상, 최대 6주까지 늘려주는 것이 탄저병 발생률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하령을 9월 상순에 수확해 저장했을 때는 병 발생률이 2.5~11.2%였으나, 9월 하순에 했을 때는 0.1~3.9%로 낮아졌다.
- 수확 시기를 늦추고 아물이 처리를 함으로써 탄저병균의 감염 통로인 괴경 기부나 표면의 상처가 충분히 아물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또한, 하령의 경엽건조제 처리는 9월 상순이 알맞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씨감자의 기부(왼쪽)와 표면(오른쪽)이 진한 갈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함몰됨

6. 정책 동향

전남도, 가뭄 대책 용수 개발에 7억 추가 투입

- 농작물 피해 발생지역 임시 양수시설 설치 등 피해 최소화 총력 -

- 전라남도는 폭염이 계속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비 7억 원(국비 6억, 시군비 1억)을 추가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 지난 7월 11일 장마가 끝난 후 지속된 폭염과 적은 강우로 나주 등 9개 시군 96.5ha에서 단감, 인삼, 콩, 고구마, 고추 등이 햇볕 데м, 조기 낙엽, 고사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농작물 피해는 더 늘 것으로 우려된다.
- 이에 따라 이번 추가 사업비는 폭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둠병 설치, 양수기와 스프링클러 시설, 살수차 운영 등에 쓰인다. 단기간에 사업을 완료해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전라남도는 지난 7월 말 긴급 투입한 한발사업비 7억 원으로 목포시 등 22개 시군 39지구에 관정을 개발하고, 양수기와 스프링클러를 시설하는 등 폭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에 온힘을 쏟고 있다.
- 전종화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농작물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용수 확보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며 “농민들께서도 물 아껴 쓰기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출처 : 전라남도

전남도, 가축 폭염 피해 예방 예비비 10억 추가

- 생균제, 비타민제 등 신속 공급키로... 1, 2차 포함 총 100억 원 -

- 전라남도는 올 여름 사상 유래없이 지속되는 폭염으로 8일 현재 가축 71만 7천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긴급하게 도 예비비 3억, 시군비 7억, 총 10억 원으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지난 1, 2차 폭염 예방 장비 등 대책비 90억 원을 포함해 총 지원 규모는 100억 원이다.
- 이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폭염이 29일째 이어지면서 가축 폐사 등 피해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가축 기력 회복을 통한 폐사 방지 등을 위해 도 예비비를 추가로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 이번 폭염에 따른 전남지역에서는 8일 현재 닭 220호 62만 6천 마리, 오리 46호 8만 9천 마리, 돼지 152호 2천 마리, 총 418호에 71만 7천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28억 6천만 원으로 추산된다.
-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62호 45만 6천 마리)에 비해 157%가 늘어난 규모다.
- 이번에 추가로 투입되는 예비비는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에 우선 지원된다. 지원 품목은 고온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생균제, 비타민제, 광물질 등이다. 농가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된다.
- 전라남도는 8일 오전 22개 시군과 영상회의를 열어 폭염 최고조 기간 동안 가축 폐사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10억 원을 긴급 투입하니, 생산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 축산농가가 선호하는 제품을 신속히 조달 구매해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 출처 : 전라남도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광양시, 한 여름 밤 속의 신개념 팜마켓 웰니스팜&파티 개최

- 8월 17일 서천변에서 농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공간 마련 -

- 광양시는 오는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광양읍 서천변에서 문화 행사와 수공예체험이 가미된 신개념의 팜마켓인 『웰니스팜&파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건강한 맛, 행복한 멋』이라는 주제로 농업과 농산품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세대와 도시지역 주민들에게 농촌과 농업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고, 나아가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의 장이 되도록 마련됐다.
-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되는 이날 행사는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이용한 건강한 먹거리를 체험하고, 광양매실로 만든 음식과 매실수를 이용한 체험공방 등이 준비된다.
- 이번 웰니스 팜&파티를 계기로 앞으로도 농촌자원과 매실을 접목한 농촌관광 콘텐츠인 웰니스 팜 광양 스토리(Wellness Farm Gwangyang Story)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출처 : 광양시



곡성군, 가축 폭염피해 최소화 총력

- 가축 폭염피해예방 시설·장비 지원 예비비 등 3억 5천만 원 확보 -

-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가 급증하자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등 긴급재난예산을 확보해 폭염피해 방지시설·장비인 스프링클러, 안개분무시설 및 환풍기 등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 군은 1차로 폭염에 취약한 가금농가 25개소에 스프링클러, 안개분무시설, 환풍기 등 1억 2천만 원을 우선 지원했고, 2차로 한우, 젖소, 돼지, 오리, 염소 농가를 포함해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다.
- 또한 곡성군과 곡성축협에서는 축사 온도를 낮추기 위한 소규모 축사 물 뿌리기를 지원하고 축산농가 사양관리요령 홍보 등을 통해 폭염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한편, 유근기 곡성군수는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방문해 폭염 예방 시설·장비를 점검하고, 가축들의 영양공급과 건강상태를 살피며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농가들과 행정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향후 폭염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곡성군



장흥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선정 70억원 확보

- 장흥군(군수 정종순)이 『2018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공모에 선정돼 7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이번 공모에서 장흥군은 『생약초 테라피사업』이 신규 사업성 평가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지역 고유의 향토자산과 다양한 민간조직을 활용해 농촌의 자립과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
- 특히, 6차 융·복합 산업을 통해 산업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속 발전 가능한 농촌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 장흥군은 헛개, 황칠, 비파 등 난대성 생약초를 대단위로 재배하고 있어 생약초 테라피 부문의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 군은 『생약초 테라피 문화에서 장흥의 미래를 만나다』라는 비전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70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번 사업을 통해서는 생약초 재배단지의 집단지화·규모화 및 생약초 스마트 팜 농법 도입, 생약초를 소재로 하는 미용·향기 테라피 제품 개발 및 브랜드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 생약초 테라피 마사지센터 조성 및 마사지인력 육성도 중점 추진해 지역 미래 관광산업의 기반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출처 : 장흥군



해남군, 폭염·가뭄 속 농작물 피해 예방 총력

- 벼 병해충 집중방제, 물관리 현장지도 실시 -

- 해남군은 계속되는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지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특히 새얼미, 신동진 등 중만생종 벼의 이삭패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8월 6일부터 17일까지 이삭도열병, 벼멸구 등 병해충 집중 방제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제지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최근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문고병과 먹노린재 발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에서 시작된 벼멸구와 흑명나방 등 해충 밀도가 높아지고 있어 집중 방제와 함께 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병해충 예찰답 등 15개소의 관찰포를 중심으로 순회예찰을 강화하고 간척지 취수장 염농도 측정, 토양수분조사를 실시해 농업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 올해 폭염과 지속적인 가뭄으로 벼의 키는 크지 못하나 포기당 줄기수가 평년보다 많아 벼 생육은 양호한 상태이다. 다만 이삭 패는 시기의 병해충 방제여부와 8월 중순 이후 기상 여건에 따라 수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병해충 방제와 걱정 물관리 등 벼 생육후기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더불어 원예작물은 관수시설을 활용해 지속적인 관수를 실시하고 고추 석회결핍증을 예방하기 위해 염화칼슘 0.3%액이나 칼슘제를 엽면살포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기타 작물에도 이랑관수나 스프링클러 등을 활용해 관수해야 한다.

* 출처 : 해남군



장성군, 맛있는 장성 농특산물 한눈에

- 우수 농특산물 100개 품목 소개하는 책자 발간... 직거래 주문 가능 -

- 장성군은 장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특산물 100여개 상품을 상세히 소개한 『장성군 우수 농특산물 홍보책자』를 최근 발간했다고 밝혔다.
- 68페이지짜리 책자에는 장성지역 60여 업체와 생산자 단체가 판매하는 농산물과 농산가공품의 정보가 총망라돼 있다. 장성의 대표 과일인 사과, 감, 토마토는 물론 새싹삼, 삼채, 블루베리, 포도, 딸기 등 다양한 품목이 소개됐다. 고로쇠, 매실원액, 각종 발효초와 장류 등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정보도 담겨 있다.
- 책자는 딱딱한 설명식 소개에서 탈피해 사진 중심의 간단한 상품 소개로 꾸몄다. 또 품목별로 생산농가나 가공업체 정보를 함께 수록해 책자를 보고 누구나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 장성군은 당초 60여개 품목을 책자에 소개할 예정이었으나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등의 신청이 많아 소개 품목을 100개로 늘렸다.
- 장성군은 책자를 각종 박람회나 행사장에 비치해 장성 우수 농특산물 알리기에 활용할 계획이다.

* 출처 : 장성군



8. 해외 농업정보

광동성 상반기 수입산 과일, 작년에 비해 30% 증가

- 2018년 상반기 광동성 연안 항구를 통해 수입한 신선과일 및 건조 과일류는 총 87.4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액은 총 146.1억 위안으로 29.6% 증가했다.
- 광동 연안을 통해 수입된 과일은 올해 초부터 매 달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특히 설날 판매효과와 비교적 이른 여름으로 인해 시장의 수요가 강세를 보였으며 1월부터 5월까지 수입량이 계속 증가하여 4월에는 총 17만 5천 톤을 기록했다.
- 주요 수입 품종은 신선 포도, 두리안 및 체리이며 평균 수입 가격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상반기 광동성 항구에서 수입한 신선 포도, 두리안, 체리는 각각 173,000톤, 122,000톤, 101,000톤으로 전년 각각 4.5%, 13.5%, 1.7 배 증가했다.
- 수입된 신선 휘룡귀(용과)는 95,000톤으로 9.2% 감소, 신선 오렌지 수입량은 75,000 톤으로 3% 증가하였다. 위의 5가지 과일 수입량은 같은 기간 동안 광동성 항구를 통해 수입된 과일의 64.7% 차지했다.
- 상반기 포도와 두리안의 평균 수입 가격은 16,000위안/톤으로 각각 6.2%와 2.1% 하락했으며 신선 체리의 평균 수입 가격은 톤당 45,000 위안/톤으로 전년 대비 15% 하락했다. 용과와 오렌지의 평균 수입가도 각각 3.9%와 11.4% 하락했다.
- 과일 총 수입량의 약 40%가 ASEAN 국가로부터 수입되었으며, 칠레와 호주산 과일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 상반기 광동성 항구로부터 수입한 아세안 과일은 총 349,000톤으로 1.4% 증가하여 광동성 항구 전체 과일 수입량의 39.9%를 차지했다.

- 필리핀 산 수입량은 39,000톤으로 43.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칠레 수입 물량은 26.6만 톤으로 61.1%, 호주 산 수입 물량은 43,000톤으로 3.8% 증가했다. 또한 이집트산 수입 물량은 36,000톤으로 20.6 % 증가했다.
- 광저우 세관이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중국 남부지역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하에 경제 무역 협력이 심화됨에 따라 운송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전자 상거래가 확대되어 과일 생산국과 소비국이 더욱 편리하게 물류와 세일즈 서비스를 이행한 결과라 밝혔다.
- 또한 올해 초부터 자국민의 소비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수입 정책을 확대하여 현 정책의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여름철 과일 특별 소비 시즌이 도래함에 따라 광둥성 항구를 통한 과일 수입이 꾸준히 증가 할 전망이다.
- 시사점은 홍콩을 포함한 중국 남부의 수입 과일시장은 계속 확대되고 있고 현재 여러 나라의 품종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한국산 과일이 자리를 확고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품질관리로 소비자와 바이어의 신뢰를 쌓고, 판촉홍보 등의 마케팅 추진 필요하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3대 명약 중 하나인 구기자, 미래의 식품 성장 동력으로 주목

- 중국 및 홍콩 내 구기자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낮은 가격이 소비자들의 주된 고려 요소였다면 지금은 품질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 웰빙트렌드와 젊은이들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좋은 품질의 구기자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구기자의 구매단가 또한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 2017년 11월 11일, 중국의 유명한 B2C 쇼핑 사이트인 Tmall(天猫) 알리 헬스플랫폼(阿里健康平台)에서 한 시간 동안 약 179톤의 구기자가 판매되었다.
- 구기자는 소비자들에게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 구기자는 보양(保養)을 위해 현대인들이 즐겨 찾는 약재 중 하나이다. 식감이 좋을 뿐만 아니라, 효능도 탁월하다. 예로부터 하수오, 인삼과 함께 중국의 3대 명약 중 하나로 뽑힌 구기자는 노화방지와 시력유지에 탁월하다.
- 또한 신체 면역을 증진시켜 주며, 치매예방과 뇌건강 유지에도 좋은 항산화 식품이다. 중국에서는 “사계절 내내 구기자를 먹으면, 천하와 나이가 똑같아 진다”는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을 정도이다.
- 구기자는 이처럼 탁월한 효능에 비해 중국 내 업계의 발전 속도는 느렸다. 주요 원인은 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재배 및 가공되어 산업집약도가 높지 않고, 가공 수준이 향상되지 못했다.
- 시장에 출품되는 구기자의 품질 또한 고르지 못했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인지도 또한 낮았다. 구기자 시장의 짧은 프로세스 체인과 미미한 부가가치 창출이 창출 또한 시장이 성장하는 걸림돌이었다.
- 6월과 7월은 구기자의 본격적인 채취기간이지만, 중국 소작인들은 즐거움 반 근심반이 섞여 있었다.

- 국내외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중국 내 구기자 재배 면적은 증가했지만, 품질이 낮고 채취 효율 또한 향상되지 못하고 있었다.
- 또한 구기자는 재배하려면 투자 대비 회수율이 낮아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어 심은 구기자 나무를 다시 베기도 한다.
- 구기자 산업이 발전을 하려면 반드시 선도 기업이 있어야 되고 구기자 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 중국의 닝샤성을 예로 들면 구기자는 닝샤를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종합 생산액은 150억 RMB이며 7,300톤 이상으로 수출되며 4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으로 수출된다.
- 고품질 구기자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유통체인의 확장과 정밀가공, 타겟시장의 세분화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세일즈를 해야 구기자 업계는 더 나은 미래 볼 수 있을 것이다.
- 시사점으로 현재 중국 및 홍콩의 임산물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가격보다는 품질이 핵심 요소이며, 소비자의 구매 경험을 중요시한다. 임산물을 전적으로 중국으로 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홍콩에서도 구기자가 점차 각광받고 있으므로 타겟시장을 세분화하고 한국산 구기자의 우수성을 알리는 프로모션을 통해, 건강식품 및 가공식품으로써 수출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8. 8. 13. 시카고 선물거래소)

- 주요 곡물 선물가격, 미 농무부 수급 보고서 발표 후 전부 하락 -

- 밀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3.1% 하락했다. 밀 선물가격은 세계 밀 재고량이 예상보다 적게 감축됨에 따라 하락했다. 미 농무부의 월간 수급 보고서는 2018/19년 세계 밀 기말 재고량을 추정치를 무역 추정치보다 200만 톤 많은 2억 5,896만 톤으로 하향 조정했다.
- 옥수수 선물은 전일 대비 3.1% 하락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미 농무부가 기록적인 수확량 전망으로 하락했다. 미 농무부의 월간 수급보고서에서 평균 옥수수 수확 단수를 평균 무역 기대치인 에이커 당 2.2부셀 높은 에이커 당 178.4부셀로 전망하였다. 이번 수확량 추정치는 역대 세 번째로 컸다.
-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4.7% 하락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수확량 전망이 무역 기대치 이상을 상회하면 하락했다. 대두유의 재고량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 농무부의 월간 수급 보고서에서 대두 수확 단수를 에이커 당 51.6부셀로 전망했으며, 2018년 수확량은 45억 8,600만 부셀로 전망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9.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한우 인공수정 교육 신청하세요

- 농촌진흥청·전국한우협회 공동 번식 교육... 17일까지 신청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와 함께 9월 5일과 6일 한우 인공수정 교육을 진행하며, 8월 17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
- 이번 교육은 인공수정에 대한 농가의 이해를 돕고, 품질 좋은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 농촌진흥청은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강원도 평창)에서 하루 30명씩 이틀간 총 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 한우연구소 연구원이 강사로 나서 한우의 번식 생리와 인공수정 이론, 암소 직장 검사를 통한 자궁경관 찾기와 주입기를 이용한 인공수정 실습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 교육 신청과 문의는 전국한우협회(02-525-1053)로 하면 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지난해 한우 인공수정 교육(실습)

농식품부, 매월 두 번째 수요일은 축산환경 개선의 날

- 매월 10일 → 매월 두 번째 수요일, 운영요일 변경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개선 단기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매월 10일에서 매월 두 번째 수요일로 변경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 축산환경 개선의 날은 농가가 축사 및 축사주변을 청소하고, 악취발생 원인을 점검하고 제거하는 날로 평소 지속적으로 축사를 관리하지만 이날을 기해 축산환경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하고자 운영하게 되었다.
- 이달부터 농협경제지주 및 생산자단체(한우·낙농육우·한돈·양계 협회)가 주관하여 연간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지자체와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이 지원하는 체계로 추진된다.
- 농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농협경제지주 및 생산자 단체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까지 농식품부(관리원)에 실시 상황을 보고하고 그 결과는 지자체와 공유해 홍보할 계획이다.
- 한편, 농식품부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및 각 기관별 홈페이지, 전광판 및 SNS(블로그, 페이스북 등)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지자체에게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 당일(매월 두 번째 수요일) 마을 단위로 안내 방송(이장, 통장 마을방송)을 하고, 축산농가에 문자를 발송하여 참여율을 높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청 렬 한 세 상



A시의 기초단체장은 약 2년간 자신의 부인이 사회봉사를 가거나 개인적으로 종교활동을 할 때, 업무용 차량과 운전기사를 이용해 개인적인 업무를 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인 공용물의 사적 사용 금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었습니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주간 전남농업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85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601)330-2593 Fax. 061)335-4199

VOL. 197

